

4.13 선거 RUN·RUN·RUN

유희태 예비후보, 진안지역 정책공약 발표

완주·진안·무주·장수군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국회의원에 예비후보(62, 전 기업은행 부행장)는 10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홍삼·한방산업의 중심 진안에 대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선거구확정 범정시한을 넘겨가면서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새롭게 선거구가 바뀐 진안을 비롯한 장수·무주군민들에게 얼굴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경선에 들어가는 값값이 선거가 안타깝다.”며 “너무 늦었지만 경선을 목전에 두고 진안군민들에게 공약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너무나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안은 세계최고의 여행 안내사인 프랑스 미술쟁그린 가이드에서 만점을 받은 마이산을 비롯해 구봉산과 백운동계곡, 운장산 등 빼어난 관광인프라가 풍성한 곳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지정공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약재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한약재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추진하고,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나물클러스터를 비롯해 지·덕권 산림유치원, 무귀산 발빛고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춘진 예비후보, 짬버리 유치 인증사진 릴레이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 예비후보(김제부안)는 10일 2023 세계짬버리 새만금 유치에 5천명 SNS 인증사진 릴레이를 기획했다. 김 후보는 2023 세계짬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인증 SNS에 게시하고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을 다음 주자로 지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가자! 2023 세계짬버리, 오래 전북 새만금으로 라고 적힌 보드판을 들고 세계짬버리 개최예정지인 부안 새만금 아영부지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한편 강은희 장관은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를 지명할 것으로 예고했다. 또 주요 인사들이 “5천만 SNS 인증 릴레이”에 참여하면서 다음 주자로 어떤 인사가 참여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광영기자·부안=이옥수 기자



정운천 예비후보 “현장에서 민생문제 쟁길 것”

정운천(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새누리당) 전주를 예비후보는 10일 새누리당 전북도당 후보자비전발표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장에서 민생문제를 확실하게 쟁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생19 전북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 후보는 지난해 8월부터 120여 곳의 민생현장을 방문해 600여건의 민생문제를 청취한 바 있다. 현장에서 청취한 민원들은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범죄예방 등 생활민원이 주를 이뤘고 청년일자리 창출, 전주전통문화지구 지정 등 정책건의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정 후보는 접수된 민원내용을 지난달 3일 중앙당에 전달해 지역민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장을 방문해보면 새누리당에게 전북발전 비전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김한솔 도당위원장과 도당 총선공약개발단을 비롯한 총선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전발표회를 가졌다.

/정영수기자



김호서 예비후보 “새만금 그만 우려했더라”

국민의당 김호서 예비후보(전주·사)는 10일 정부와 전북도에 정치권이 새만금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한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개발에 사생결단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작곡이 25년을 넘겨 정권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새만금사업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라며 “이는 도내 여·야 정치권이 진정성 없이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을 정치권 유희먹기 공약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25년 동안 새만금을 방치했다는 데에 대한 질타를 벗어날 수 없다”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아울러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직을 걸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폭 개정을 통한, 새만금사업의 신속지원, 획기적인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이상의 인센티브 부여, 예산 조기 투입 등으로 새만금의 조기 완성과 전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수성 ‘당찬 초선’ 김성주 VS 탈환 ‘미워도 또’ 정동영

Report 제20대 총선 격전의 현장을 찾아 - ③전주 병

타 선거구에 비해 잠잠했던 전주 병 선거구가 하룻밤사이 전국적인 관심지로 부상했다. ‘당찬 초선’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덕진구)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해 평정했다고 판단했던 지역에 거물급 돌이온 탕자 정동영 예비후보(국민의당·전주 병)가 지난 2월18일 국민의당에 입당하며 출마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고교(전주고)·대학(서울대) 선·후배간의 맞대결’ 등 다양한 수사가 붙는 전주 병 선거구는 비단 김 의원과 정 예비후보만의 대결을 넘어 아원을 향한 호남민심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게 정가의 의견이다. 이는 현역인 김 의원의 수성과 정 예비후보의 탈환 여부가 호남발 경제개편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

주병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새누리당 1명, 더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등 총 5명이다. 먼저, 새누리당 양현섭 민주평등자문위원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보수층 흡수에 나섰다. 양 예비후보는 등록 당시 지지율이 3.3%에 불과했지만 최근 뉴스 전북취재본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12.6%까지 상승했다. 양 예비후보는 “초반에 부진했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저의 진정성에 유권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국민의당 예비후보 중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정 예비후보가 국민의당에 입당하며 출마의지를 내보이자 후보자에서 사퇴한 뒤 정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성은순 미래인문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더민주당이 10일 전주병 선거구에 김성

불꽃경쟁 예고

성은순 예비후보 공천 배제 더민주당, 김 의원 단수 확정

김 의원, 지역내 입지 높아 정 예비후보도 영향력 커 선거캠프 조직력 등이 변수

주 의원을 단수로 올림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전주병 선거구는 김 의원과 정 예비후보가 본선에서 금배지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 지역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제야당 소속이던 입지가 있다. 뿐만아니라 초선임에도 국회보 건복지위 간사 뿐만아니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의 공을 지역민들로부터 인정 받고 있다. 여기에 4년 임기 내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서 선정됨은 물론 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났다.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통일부장관을 역임했고 15~16대 총선에서 해당지역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당

선된 정 예비후보의 뒷심도 만만치 않다. 또한 정 예비후보는 한때 전북지역에서 유일한 대선 후보로서 초선인 김 의원에 비해 국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표심 공략에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김 의원과 정 예비후보의 승패는 전북 지역 선거의 명운이 걸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각 선거캠프의 조직력과 함께 외부 정치세력의 지원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과 정 예비후보의 당락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 2009년 전주 덕진 재선거 때와는 달리 정 예비후보의 출마에 대한 지역 내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유권자들이 ‘그래도 정동영’을 찍을지 ‘이제는 김성주’를 찍을 지에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앙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0일과 21일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 전화·휴대전화 조사(95% 신뢰구간, 오차범위 ±4%p)결과 김성주 의원이 40.3%, 정동영 예비후보가 31.4%로 나왔다. /정영수 기자

정청래 의원 컷오프 “말도 안돼”

더민주당 전국 시도당에 항의 등 쇄도 · 흠피 마비... 후폭풍 거세 정봉주 전 의원 “구명 위한 무기한 국민 필리버스터 돌입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10일 야권 관계자들이 따르면 정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발표된 직후부터 전국 시도당에 탈당문의와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당 대표 비서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항의전화가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당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면서 당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더민주당 홈페이지는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정청래 의원이 평소 트위터·페이스북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했고,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청래 일병 구하기 공지를 올렸다. 정 전 의원은 “정청래 컷오프 철회와 구명을 위한 무기한 국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며 “국민의힘! 오후 5시 더민주당 여의도 당사앞으로~, 국민리트윗~.”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배우 문성근씨등 2100명이 퍼널됐다. 문성근씨는 정 전 의원의 글을 게시한 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인가 재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혜원 더민주당 홍보위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지도부의 판단·말할 수 없이 섭섭하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의정활동과 지역구에서의 노력 외에 뭔가 복합적인 것이 또 필요한 거보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 한 길만 보고 열심히 일한 한 정치가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요”라며 “정 의원이 용기있고 지혜로운 그만의 방식으로 우리 곁에 남아줄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현재 외부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조만간 SNS를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규성·부화현 의원 등은 재심을 청구기로 해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이성주 기자

“인간다운 삶 되찾기 위해” 장애인 600명 김성주 지지 선언

전북도 15개 장애인단체 장애인 600인이 김성주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들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인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 위해 김성주 후보와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며 김성주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성주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외무자 기준 적용에서 중증장애인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장애 인연금의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의 문제가 국가 책임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지지사연 이유를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교육청 추진 민관협력위 도의회 축소 의지와 상반”

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업무계획 청취 정호영 의원 “별도 위원회 조직 ‘육상육’ 비판 이해숙 의원 “학교밖 청소년 위한 실질적 대책 시급”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문모)는 10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원들은 황효진 부교육감을 상대로 열악한 교육재정 해결 방안과 누리과정에 예산, 학교밖 청소년 대책, 학력신장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2015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만 설문조사에 참여해 교육청의 일반직원들이 소외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교육청에 지난해 기준으로 76개 위원회가 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민관협력위원회는 최근 위원회를 줄이려는 도의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육상육”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숙(전주)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이 1,318명으로, 해마다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밖 청소년들이 대안교육기관과 연계한 교

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정(군산8) 의원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내 각급 학교의 교구와 기자재, 시설물, 용품 등에 대한 ‘학교간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면 교육 예산의 절감이 기대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상으로 교구나 기자재 등의 목록과 사진, 용도 등을 학교간 공유하면 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학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현(익산8) 의원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청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교육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 없는 성공하기 힘들다”며 “교육사업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도의회 등과 민관이 협력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도의회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도교육청이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행정 체계를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광영 기자

“선거운동, 세컨드라이프를 이용합니다”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 가상현실 캠프 공식 오픈 더 쉬운 정책 체험 서비스로 청년층 관심 유도 기대

익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예비후보는 10일 3차원 입체 가상현실 서비스인 세컨드라이프(secondlife.com)에 “강팔문 VR(Virtual Reality) 캠프”를 공식 오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민

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세컨드라이프에 선거캠프를 구축해 연설회 등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으나 VR기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프 관계자는 “홈페이지나 SNS를 벗어나 체험이 가능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찾던 중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



고 있는 오픈클래스피트를 비롯한 VR디바이스를 이용한 3D가상 현실세계에 주목했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후보자와 후보의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라 전했다. 강 후보는 이번 가상 캠프를 통해 젊은 층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낼 계획이며,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익산의 백제문화권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VR캠프의 소개와 접속방법 및 한국 커뮤니티 KOTA와 조이윈드코리아에 대한 정보는 강팔문닷컴 (http://www.kangpalmoon.com)에 자세히 소개 되어 있다. /익산=장왕일 기자